

# 전북 바이오산업 일자리 혁신 본격화

### 전주·익산·정읍 연계해 기업 성장·근로자 복지 지원 확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익산시·정읍시가 함께 추진하는 'BIONE(바이온) 고용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바이오산업 일자리를 혁신에 나선다.

바이오진흥원은 바이오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기초이음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추진됐

다. 전북 바이오산업의 통합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익산시·정읍시,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행기관들이 함께 지역 일자리 현안을 분석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거쳐 마련했다. 특히 지역 바이오산업 기능 연계와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고용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 사업 가운데 'BIONE 기업성장 환류형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은 바이오기업 간 협력 강화와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기업에는 최대 5천만 원 규모의 채용약정형 지원금이 제공되며, 기업은 지원금 일부를 근로자 복지 향상에 활용해야 한다.

또 'BIONE 숨은시간 활용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은 업무 효율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공정 개선, 자동화 시스템 도입, 전문가관

위탁 등에 기업당 최대 4천만 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바이오기업 재직자를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도 추진된다. 돌봄과 문화·여가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재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은미 원장은 "이번 사업은 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근로자 복지를 함께 연결하는 지역 상생형 고용모델"이라며 "전주·익산·정읍 바이오산업 생태계 연계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전주수목원 사진 공모전 열린다

### 장미의뜨락 세계 우수정원 선정 1주년기념 내달 12일까지 접수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전주수목원 '장미의 뜨락'의 세계 우수정원 선정 1주년을 기념해 '2026 전주수목원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장미의 뜨락'은 지난해 일본 후쿠야마에서 열린 세계장미대회에서 세계장미대회(WFRS)가 선정하는 '어워드 오브 가든 엑셀런스'를 국내 수목원 가운데 처음으로 수상하며 세계 우수정원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전주수목원의 아름다운 정원 경관을 국민의 시선으로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전주수목원의 풍경과 식물,

시설 등을 담은 사진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12일 오후 2시까지다. 참가 희망자는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대상 100만 원을 비롯해 최우수상 등 총 4개 작품이 선정된다.

수상작은 오는 9월 열리는 '2026 한국도로공사 정원박람회' 기간 특별 전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 도내 소기업 공정개선 지원사업 본격 추진

### 48개사 선정 최대 4000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이 도내 제조기반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정개선 지원사업과 시험분석·품질인증특수 지원사업으로 구성되며, 최근 유가 상승과 원자재·물류비 부담 확대,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제조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원은 이를 위해 '소기업 공정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 설명회와 협약 체결을 진행했다.

공정개선 지원사업은 도내 제조기반 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성 향상,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소기업 공정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 설명회와 협약 체결을 진행했다.

ESG 기반 작업환경 조성,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는 현장 맞춤형 사업이다. 올해는 총 48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5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특히 선정 기업들은 수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제조 공정 개선과 자동화 설비 도입, 작업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품 품질 안정화와 워생 수준 향상은 물론, 작업자의 피로도 감소와 안전사고 예방 등 ESG 기반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효과도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경진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들은 생산 효율 향상, 거래처 납품 확대, 제품 불량률 감소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 운영 방향과 추진 일정,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함께 진행됐으며, 선정기업들과 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윤여봉 경진원장은 "공정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소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ESG 기반 작업환경 구축과 디지털 전환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진원은 하반기 중 소기업의 제품 성능 검증과 인증 취득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특수 지원사업' 참여기업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연간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2차와 3차 모집은 각각 7월과 10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 전북중기청, 장마철 대비 전통시장 안전점검 강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장마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통시장 안전점검에 나선다.

전북중기청은 군산명산시장을 비롯한 전북지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침수 이력이 있거나 하천변·저지대에 위치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전북지역 전통시장 50곳 가운데 피해 우려가 높은 15곳은 전북중기청이 직접 점검하고, 나머지 44곳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점검을 맡는다.

점검에는 전북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건축·구조·전기 분야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 현장 안전성을 살핀

다.

주요 점검 대상은 아케이드 누수 여부와 배수로 관리 상태, 외부 시설물 고정 상태, 전기설비 침수 취약 여부 등 풍수에 취약한 시설 전반이다.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와 상인회에 즉시 전달해 개선을 유도하고,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및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상만 전북중기청장은 군산명산시장을 찾아 "집중호우와 태풍은 전통시장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상인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전북농협·농관원 전북지원,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협력

전북농협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전북 농산물의 안전성 강

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1일 전북농협에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소기업 공정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 설명회와 협약 체결을 진행했다.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로컬푸드 1번지'로 불리는 전북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농협 경제사업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안전성 조사 관련 교육을 정례화하고, 명절과 성수기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한 사전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진류농약 검사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실무자 간 상시 소통체계를 운영하고, 농산물 안전 및 원산지 교육을 지속 확대해 전북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 전북테크노파크 애로해소센터 세무·회계 전문위원 신규 위촉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와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애로해소센터 세무·회계 분야 전문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전문위원 체계를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전북테크노파크 애로해소센터는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화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기업지원 플랫폼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원스톱 상담과 현장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신규 위촉된 전문위원은 앞으로 기업 현장방문과 상담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과 지원사업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 중국상하이·선양에 중소기업 10개사참여 무역사절단 파견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무역사절단을 파견했다.

경진원은 중국 시장 점유율 확대와 신규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제4차 무역사절단'을 중국 상하이와 선양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절단은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도내 유망 중소기업 10개사가 참여한다.

참가 기업들은 중국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와 동북 3성 물류 거점인 선양을 방문해 현지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

회를 진행하며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선다.

중국은 전북의 주요 수출 시장 가운데 하나로, 최근 상하이와 선양 지역에서는 프리미엄 식품과 화장품, 스마트 가전 등 K-소비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진원은 이번 무역사절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파견 2개월 전부터 현지 바이어 발굴과 기업 맞춤형 매칭 작업을 진행해 왔다. 또 상담회 이후에도 참여 기업과 현지 바이어 간 네트워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